

해양문화연구 제5호 1999년 12월

해양문학에 대한 소론

- 해양문학의 개념을 찾아서 -

이 철 영*

〈目 次〉

1. 머리에
2. 해양문학의 세계사
3. 해양문학의 개념과 평가
4. 맺으면서
5. 참고문헌

1. 머리에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해양문학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기에 이르렀고, 해양문학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위한 단초를 제공하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성과들을 고려하더라도 해양문학이란 어떤 문학작품을 가르키는 것인가라는 정의 또는 개념을 명확히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사례 또는 문학평론 등을 참조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해양문학은 “바다를 배경으로 하거나, 해양에서 직접 취재한 문학작품”, 또는 “해양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체험이나 관찰에 기초

* 한국해양대학교 불류시스템공학과 교수

한 문학작품”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¹⁾

물론, 이들 개념은, 해양문학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으로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특히, 일반적이라고 한정하는 이유는, 이들 정의가 해양문학의 성립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하고는 있으나, 작품의 내용, 또는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고 있지않다는 점에서, 또는 보다 엄밀한 문학적 의미에서 해양문학에 대한 개념으로서는 반드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해양문학의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고, 그 대상도 우리의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예를 들어 해양문학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해양문학(marine literature)에 대한 연구가 매우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다.²⁾

이러한 사실은 영국의 해양문학, 또는 해양관련 문헌이 양적으로 매우 방대하다는 점에서 읽을 수 있다. 즉, 영국 국방성의 해사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서에는 항해관련서는 약 5천권, 전쟁기록작품은 6천권이 넘으며, 해양관련작가의 수도 2만 1천명이 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해양진출의 역사라는 면에서 볼 때 비교적 그 역사가 짧은 미국의 경우에도, 해군관계장서와 문헌이 소장되어 있는 해군도서관, 유럽에서 발간된 원전을 포함한 중요한 항해서의 대부분을 소장하고 있는 뉴욕시립도서관, 해양작가 콘라드의 문헌 및 도서수집에서 매우 독자적인 존재인 뉴욕선원교회 도서관, 요트관련 자료의 미스틱-시포트 도서관, 포경 및 교역관계의 피보디박물관 도서관 등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적 성과에 중점을 둔 사회적시설이 얼마나 충실한가를 살펴볼 때 바다의 역사를 지닌 사회가 보이고 있는 깊고 넓은 문화적 토양을 읽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해양문학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적인 관점에서 해양문학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해가면서 고찰하기로 한다.

- 1) 전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해양체험이 지배적인 배경과 주제”가 되는 작품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다(구모룡, 海洋文學序說, 해양문화연구, 1996).
- 2) 해양문학의 영어표현으로는 sea story, sea literature 등이 있으나, 영국에서는 marine literatur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해양문학의 세계사

(1) 근대이전의 해양문학

옥스포드³⁾사전에 따르면, 해양문학은 바로 바다 그 자체의 광대함에 비유할 수 있다-즉, 인간사회의 역사는 인간이 꾸려 온 역사이며, 바다와 배와 사람의 역사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이다. 바다에 살고, 싸우고, 탐험하기 위하여 바다를 향해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해양문학의 역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The history of the world'... 'is but the biography of great men' and the same can be said of the history of ships and the sea. It is through the biographies and literature of the men who have lived and fought on the sea, and who have voyaged across it in search of new lands, that we are able to chart its influence on events. The literature of the sea is comparable in its extent with the ocean themselves.]

인류사적인 관점에서 해양문학의 원류로 들수 있는 최초의 작품은 아마도 B.C 6세기경에 쓰여진 고대 그리스의 호메르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 등에 의한 해양서사시를 필두로 한 해양민족의 활동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시대의 해양문학으로는, 로마인의 저서중에서 해양에 관련된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북구 항해민족의 카레와라(Kalevala), 에다와 사가(Eddas and Sagas)를 들어야 할 것이다.

유럽중세는 교회의 연대기가 인간적인 의미의 기록을 문학적인 형태로 기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양문학에 관해서는 침체기라 할 수 있으나, 교화라든가 봉건영주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북해라든가 발틱연안의 해양민, 회교도 등 해양제민족에 관한 설화에는 이 시대의 해양과 인간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중세의 유럽에는 십자군원정이나 독일의 한자에 의한 활발한 해상교류

3)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hip & the Sea.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0년간은 영어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양문학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르네상스시대 이후 인쇄술의 발달과 지리적인 발견시대를 맞이하여 해양문학은 서서히 활기를 띄우게 된다.

대항해시대 초기에 있어서 영어에 의한 문학적 성과로서는 토마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Utopia)를 들 수 있으나, 이 작품에서는 매우 한정된 해양지식을 바탕으로 한 항해드라마가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항해자 자신의 손에 의해 쓰여진 작품은 포르투갈과 스페인계의 항해자 기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15세기 말 동서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먼저, 1550년에 베네치아의 람지오(Giovanni Batista Ramusio)가 쓴 3권의 대저서 항해·여행기전집이 편집되었다. 영국에서도 거의 같은 시기에 리처드 에덴(Richard Eden)이 스페인어를 번역하여, 1561년에 Arte of Navigation을 출간하여 바다에 대한 문학적 관심의 문을 열었다.

또한, 람지오판이 출간된지 40년 정도가 지난 후 보다 스케일이 큰 영어에 의한 역사적인 항해기록집, 즉, 리처드 하크루트(Richard Hakluyt)가 편찬한 영국국민에 의한 항해·여행·발견에 관하여(전 8권)이 탄생하게 된다. 이 총서에는 15세기 작자미상의 해양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화사적인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크루트의 사업은 사무엘 파치스(Samuel Purchas)에게 전수되어, 1625년에는 기록집-영국민 및 타국민이 이룩한 항해와 여행의 역사총서 전 20권이 완성된다.

국가적인 필요에 따른 탐험, 모험적인 항해로 인해 국가세력이 신장되었던 영국은, 드디어 19세기 중엽에는 유럽 제 1의 해양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며, 1846년에는 하크루트의 명성을 기념하여 하크루트협회가 설립된다. 이 협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해·여행기·지리지의 수집 및 간행을 계속하고 있고, 현재 약 300여종이 발간되어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보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1704년부터 파체이스 이후의 기록을 집대성한 편찬자 불명의 항해통사 총서가 간행되었다.

이처럼 근대에 이르는 대항해시대의 항해·여행기록이 집대성됨으로써

서구사회의 지리적, 사회적요소를 길잡이로 하는 해양·해사인식의 지적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근대적인 해양문학

하크르트 이래의 항해기록의 집대성사업이 영국해사사회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었다.

북미동안, 카리브해, 대서양항로, 북서항로(북미 북측을 통과하는 동양에의 항로), 남미동안, 북미회귀 태평양항해, 북미 태평양탐험, 대양주에의 탐험항해로 발전해가는 자연과학적인 탐험항해라든가 식민, 영토확장, 약탈행위 등이 정보로서 축적되어 온 것이다.

영국해양문학의 또 하나의 흐름으로, 17세기 찰스 1세 시대로부터 영국해군의 저명한 함장 등에 의해 해군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685년에는 나다니엘 보테라(Nathaniel Boteler) 선장에 의해 해상업무에 관한 6개의 과제(Six Dialogues About the Sea Services)가 저술되었다. 이 저서에는 선장의 직무상의 권위와 프라이드가 강조되어 있어서 영국선원전통의 바탕이 되고 있다.

영국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전쟁기록문학의 원류는 이러한 선구적인 선장들의 업적위에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와 더불어 1689년부터 해군총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의 함대-영국의 함선(Gloria Britanica, or The boats of British Seas)가 출판되어 해군에 관련된 통계가 국민적인 기초문헌으로 자리잡게 되는 전통이 수립되기에 이른다. 이것은, 해군의 여러 가지 통계를 요약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해양문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과 시민들에게 해양문화에 대한 컨센서스를 형성하게 하는 토양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1848년에 출판된 범선시대의 기술정보의 보물이라고 일컬어지는 항해용어해설집(Glossaire Nautique)를 태어나게 했으며, 그 위에 1889년 브랏세이(Earl Brassey)백작의 제창에 따라 해군함정연감(The Naval and Shipping Annual)이 창간되었다. 이 연감은 현재도 세계함정정보의 기본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인해군연감(F.T. Jane "Fighting Ships")의 원류가 되고 있다.

이들 해군자료를 기초로 하여 해양전쟁기록문학이라고 하는 장르가 성립되기에 이르며, 미국의 마한(Alfred T. Mahan) 등을 필두로 한 역사해설을 주제로 하는 해군전기의 수법이 확립되어 많은 전기작가가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해양모험소설의 흐름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영국해양문학은 지리적 발견시대의 생생하고 박력있는 항해기록을 모체로 하여 성장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항해 그 자체가 미지의 해양에 대한 탐험, 적대국 선박의 약탈, 영토의 확장과 부의 획득, 가혹한 자연과의 싸움, 새로운 항로 및 지리적 인 발견 등 문학적인 흥미를 촉발시키는 시대였기 때문이다.

영국해양문학의 또 하나의 기둥으로는 설화문학이 있다. 바다의 민화라든가 전승은 오랜동안 민중속에 축적되어왔으나, 16세기의 수도녀의 이야기(Nun's Priest's Tale)이라든가 그 1세기후 셰크스피어의 템페스트(The Tempest) 등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셰크스피어의 소설중 가장 바다가 짙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1609년에 버뮤더에서 조난한 선박 시 벤처(Sea Venture)호의 기록으로부터 인스피레이션을 얻은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해양을 소재로 한 연극은 근대에 들어 1878년의 질베르 앤드 설리반(Gilbert and Sullivan)의 풍자극 군함 피너포어호(H.M.S. Pinafore)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거의 주목할 만한 작품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근대해양문학은 해양의 존재와 인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자아의식에 기반을 둔 문학영역으로 발전하고 있다. 옥스퍼드사전에서는 이러한 작품을 문학적인 의미에서 “보다 엄밀한 의미의 해양문학작품(necessary to distinguish)”으로 일반적인 해양문학·문학의 개념과 구별하고 있다.

이러한 근대정신의 발로로 영국선원문학의 원조라 일컬어지는 최초의 해군작가 드비어스 조지 스몰렛(Tobias George Smollet)과 이어서 19세기 전반의 프레드릭 마리엇(Frederick Marryat)선장이 등장한다.

미국의 허만 멜빌(Herman Melville)은 바다의 모험 보다도 바다와 인간의 투쟁을 그렸으나, 이들 선구자들이 개척한 해양픽션의 세계에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 리처드 휴즈(Richard Hughes)가 가세하게 된다.

시의 세계에서는 16세기의 에드몬드 스펜스(Edmund Spenser)라든가

그 후의 존 단(John Donne)을 거쳐 범선시대의 바다의 노동가(the sea shanties of the sailing ship) 등을 자양분으로 하여 키플링(Rudyard Kipling), 메이스필드(John Masefield)로 이어지는 전통이 구축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해양문학의 역사적인 유산을 자양분으로 하여 근대해양문학은 커다란 결실을 거두게 되나, 이상의 고찰로부터 다음 몇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축적된 해사지식이 시민사회의 재산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국해사문화의 전통으로 면면이 이어져왔고, 이러한 축적과 전통이 근대이후의 해양문학을 꽃피우는 필수적인 문화적 토양이 되었고,

둘째, 이처럼 축적된 역사적인 해사지식·정보가 국민 각 계층에 넓고 깊게 뿌리를 내려 국민들 사이에 해양에 대한 인식의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왔으며,

셋째, 근대해양문학을 해양의 존재와 인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인간의 자아의식에 기반을 둔 문학영역으로 근대이전의 해양문학·문헌과를 구분하고 있으며,

넷째, 해양문학을 해양소설, 전쟁기록문학, 모험소설, 설화문학, 시, 희곡 등으로 구분하여 해양문학의 장르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민의 해양이나 선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깊이는 전세계적으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예이지만 이러한 국민성도, 해양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기록, 즉, 해양문학을 다루어 온 사회적인 전통에 의해서 배양된 것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3. 해양문학의 개념과 평가

(1) 좁은 의미의 해양문학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해양문학작품 중에서 보다 엄밀한 의미의 해양문학이란 어떠한 성격과 내용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해양문학작품을 문학적인 의미에서 바라 볼 경우, 그 작품이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인 체험으로 바다에서 소재를 얻었다는 것은 그 작품의 외적인 요인, 또는 성립에 관한 조건에 지나지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해양문학작품으로서의 질적, 내용적인 파악, 또는 평가를 하기에는 불충분하므로 해양문학작품을 안으로부터 지탱하는 요인이 무엇인가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요인이란, 바로 “작품의 주제를 이루는 해양의 특성-해양성”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문학적인 의미에서의 해양문학이란 “해양성이 주제가 되는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해양성이란 해양이 지니는 다양한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해양이 지니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탐구의 결과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은 그 주요한 부분이며, 바다에 관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인간사회의 풍속·관습, 또는 정신적인 풍토도 그 중요한 요소이다. 항해기술을 포함하는 모든 해양전통기술·과학기술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선박이나 생물, 또는 지리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⁴⁾

이들 해양성, 또는 해양에 있어서의 진실이 지식이나 체험을 통하여 문학작품속에 도입되고 작품의 주제가 되어 독자에게 감흥을 불러일으킬 때에 비로소 해양문학이 성립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성은 독자를 지적, 감정적, 의지적인 의미에서 납득시킬 수 있는 진실의 힘-박진성, 즉, 리얼리티를 수반하지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해양공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실체이므로, 그곳에서 획득한 리얼리티가 없다면 해양문학작품의 주제를 지탱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부분을 해사적인 구성이나 해양묘사에 할애한 작품이라하더라도 리얼리티가 없다면 훌륭한 해양문학작품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알랑 제르보(Alain Gerbaut)의 지적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

4) 해양성에 대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는 親水性(原水性), 臨水性, 智水性, 開放性을 들 수 있다(이철영, 해양성을 찾아서, 21세기 부산의 발견, 콜로키움)

5) Alain Gerbaut(Seul A Travers L'atlantique)

[해양작가로서 훌륭한가 어떤가는 얼마만큼 바다를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작품속에서 진실을 수반한 바다의 향기를 얼마나 잘 전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지적에서는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바다의 향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주제와 해양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바다의 향기를 해양작품에서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해양문학에 침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서 전통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감각적인 추상성속에서도 작품 그 자체에 적절한 해양적인 리얼리티가 존재하지않는 한 높은 차원에서 독자의 감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향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어떻게 자기자신의 해양지식과 감성에 의해 바다의 진실을 파악하고 작품속에 살려 독자의 마음을 향기로운 바닷내음·갯내음으로 채울 수 있는가 라는 것이 해양문학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해양문학작가들이 적절한 해양체험을 바탕으로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참조)

이러한 의미에서 좁은 의미의 해양문학이란 작품의 주제 및 표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해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주제의 문제로서 정확한 해양성이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작품이 지적인 의미에서 진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잘못된 해사지식에 바탕을 둔 훌륭한 해양문학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자기 스스로 바다를 체험한 작가들중에도 해사지식에 대한 겸허한 탐구가 부족하여 작품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예도 적지않다.

이러한 류의 작품은 바다음치(Short sea sailors)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헌·자료를 얕은 지식으로 작품화하는 경우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이다.

둘째, 해양에 대한 독자적인 관찰과 풍부한 감성, 그리고, 표현력의 문제이다. 바다의 특성을 살린 구성·기술·묘사가 된 독자적인 표현으로 주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으로서 제르보가 말하는 바다의 향기는 이 요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문학적인 작품에 자주 보이는 약점은 이 점에 있으며, 체험자의 문

〈표 1〉 대표적인 해양문학가들의 작품 및 해양체험

작가명(국가)	작품	해양체험
Herman Melville(미국)	• Moby dick • Billy Budd, Sailor	• 화물선 선원/포경선선원
Stephen Crane(미국)	• The Open Boat	• 표류체험
Jules Verne(프랑스)	• une Ville Flottante • Le Chancellor • Le Sphinx Des Glaces • Les enfants du capitaine Grant • Mathias Sandorf	• 인도행선박의 견습선원
Conan Doyle(영국)	• Tales of blue Water	• 포경선선원/화물선선원
Pierre Loti(프랑스)	• PECHEUR D'ISLANDE	• 해군학교졸업/해군중위/해군대령
Joseph Conrad (폴란드/영국)	• Youth • Lord Jim • Typhoon	• 선원/2등항해사/1등항해사/선원
Jack London(미국)	• The Sea Wolf	• 밀렵감시자/어선선원
Earnest hemingway	• The Old Man & The Sea	• 요트/트롤어선 승선/낚시
William Hope Hodgson (영국)	• The Voice in the Night	• 원양법선 승선/3등항해사
Peter Matthiessen(미국)	• Far Tortua	• 해양자연과학자
Aistair Maclean(영국)	• H.M.S.Ulysses	• 해군함정승선
C.S. Forrester(영국)	• Hornblower Series	• 해군함정승선
Cyril Northeate Parkinson(영국)	• A Delancey novel	• 해양사 및 동남아사 연구자
Alexander Fullerton (영국)	• Evarard Series	• 해군소위/대위
Alexander Kent(영국)	• Richard Bolitho	• 해군함정승선
Anthony Tru(남아공)	• The Moonrake Mutiny	• 선원/해군장교
Peter Benchley(미국)	• The Island	• 스쿠버다이빙 전문가/해양사 및 조난사 연구자
Herman Wouk(미국)	• The Caine Mutinity	• 해군장교/해군대위
John Masefiell(영국)	• The bird of Dawning	• 소형선 및 요트 항해
Richard Armstrony(영국)	• Sea Change	• 선박승선(17년)
John Edward masefield	• From Saltwater ballads	• 연습법선 견습사관

학, 논픽션분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해양소설분야에서 특히 중요시되는 측면으로, 작가의 해양에 대한 인식과 해양정신에 대한 자세로서, 사상적인 의미를 포함하여 작가가 호소하고자 하는 작품세계가 어떠한 해양인식에 의해 발상되고 구축되어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해양문학작품의 내적충실을 지탱하는 요건중의 하나는 이러한 면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2) 작품성의 객관적인 평가

지금까지, 좁은 의미에 있어서 해양문학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시에 평가라는 관점에서 해양문학이 갖추어야 할 주제(소재) 및 표현(문체·구성)의 특성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소재주의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작품을 대상으로 해양문학으로서의 작품성을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않다.

아래에서는 하나의 시도로서, 해양소설을 중심으로 작품성을 평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해양소설을 평가할 경우, 그 첫걸음은 그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선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해양소설은 그 하나 하나가 개성적이고 독립적이며, 그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문장표현, 주제, 플롯, 내용의 풍부함, 재미 등 정량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순히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동일한 작품에 대해서도 작품이 지닌 애매성·복잡성으로 인해 정반대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은 예술적인 창작물이 지닌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본원적인 특성을 지닌 작품을 평가하는 평가할 경우, 평가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존재한다. 평가자가 작품을 평가할 경우, 개인의 경험, 지식의 정도, 기호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요인이 작용한다. 따라서, 작품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주관성에 의해 평가의 애매성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작품의 평가과정에는 평가되는 작품과 평가자 모두에 애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가항목은 객관성을 추구하면서도 주관성과 애매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양소설의 작품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서 작품성의 수준(Degree of likely Marine Novel)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위에서 지적한 평가자의 주관성이 애매성위에서 어떠한 양태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평론가가 해양소설을 평가할 경우, 자주 사용하는 평가항목으로는 주제, 문체, 구성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평가항목도 매우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내용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표 2>에 보이는 평가항목을 인용하기로 한다.⁶⁾

<표 2> 평가항목

θ_1) Variety	플롯, 주제, 문체, 구성에 나타나는 변화의 정도, 다양성, 주로 非單調性
θ_2) Unexpectedness	플롯, 주제, 문체, 구성의 전개에서 보이는 예상선 흐름으로부터의 벗어남, 흔들림의 정도
θ_3) Freshness	플롯, 주제, 문체, 구성이 지식욕을 만족시키는 정도
θ_4) Enrichment	플롯, 주제, 문체, 구성이 기대감이나 기호에 대한 부응의 정도 또는 흥미·매력의 정도
θ_5) Density	스릴, 유모어, 리얼리티, 넌센스의 정도
θ_6) Readability	플롯, 주제, 문체, 구성의 평이성, 이미지형성의 정도

이들 평가항목은 항목간의 경계가 애매하고, 그 내용도 애매한 부분이 많으나, 소설이 지닌 특성을 감안한다면 점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들 6개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애매측도를 도입하여 평가자의 주관성과 평가항목간의 상호작용효과(중복 및 상승효과)가 어떤 양태로 표현되는가를 평론가들의 응답자료를 기초로 동정(Identification)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⁷⁾

6) 평가항목은 평론가, 작가 및 독자 등으로 구성된 그룹에서 창조발상법, 인자분석법 등을 도입하여 선정하였다.

7) 애매측도(Fuzzy Measure) 및 동정방법은 매우 엄밀하고 복잡한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므로 참고문헌(이철영외, Modelling of story evaluation)을 참조할 것.

〈표 3〉 피험자 그룹의 평가항목에 대한 중요도의 밀도

	A	B	C	D
	$\lambda = -0.86$	$\lambda = -0.95$	$\lambda = -0.93$	$\lambda = -0.74$
θ_1	0.090	0.230	0.185	0.253
θ_2	0.180	0.415	0.278	0.296
θ_3	0.314	0.415	0.649	0.338
θ_4	0.494	0.553	0.324	0.380
θ_5	0.359	0.461	0.463	0.169
θ_6	0.449	0.277	0.371	0.169

이 결과에 대하여 약간의 고찰을 하기로 한다. 먼저, 〈표 3〉에서 λ 는 평가항목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내는 파라미터로서 모든 평가자가 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평가항목간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평가자가 종합적인 평가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선형적인 중요도의 크기를 살펴보면 각 평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가항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평가자의 주관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각 그룹의 특성을 살펴보면, Unexpectedness에 대해서는 각 그룹 모두 그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나, Readability에 대해서는 평론가 그룹(D)에서는 중요하지않은 것으로, 독자그룹(A)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설의 객관적인 평가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이고 있다.

이상에서 해양소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작업의 객관화를 위한 전 단계로서 평가자의 주관성이 애매성위에서 어떤 양태로 표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종합적인 평가자대는 이러한 동정과정을 거쳐 작품이 지닌 애매성과 복잡성까지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이나, 이러한 과정에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될 수만은 없는 창작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해양문학의 장르, 모티프를 추구할 경우, 소재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를 결정하거나, 일반적인 해양문학과 좁은 의미의 해양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 훌륭한 해양작품을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평가자의 실험집단을 구성할 경우, 평론가를 포함한 문학감상자가 얼마나 깊은 해양지식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피실험자 모두가 느끼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며, 개인 그리고 나아가서는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평론가를 독자(감상자)의 대표라 한다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사지식에 관련된 자료의 부족 또는 낮은 보급도로 인해 우리의 독자가 지니고 있는 해사지식에 대한 미성숙성 또는 해양적인 후진성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점은 해양문학, 더 나아가서는 해양문화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4. 맺으면서

본 소론은 해양문학의 개념, 장르, 모티프의 규명, 해양문학의 토양에 대한 체계화, 그리고 평가의 객관화를 위한 작업에 대한 소박한 관심의 한자락으로 시도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는 작품속에서 바다를 찾는 과정을 거쳐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해양문학은 해양과 문학분야 양쪽에서 함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소론의 내용도 해양문학의 발전을 위한 조그만 시도에 걸맞는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해양문학에 대한 연구의 지평을 여는 데에 한 알의 씨앗이 되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참고문헌

1. 구모룡, 해양문학서설, 해양문화연구, 1996
2. 조규익, 최영호(역음),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1994
3. Marine Literature, The Oxford Companion to the Ship & the Sea, 1998
4. 歴史文學と海, 毎日新聞社, 1979
5. 後藤積, 交通と文學, 出版共同社, 1988
6. 이철영, 해양성을 찾아서, 21세기의 부산의 발전, 콜로키움 자료집.
7. 이철영외, Story Formation by Computer, SPFP 4, 1978.
8. _____, Algorithm of Creating Story, 上同 5, 1979.
9. _____, Fuzzy Algorithmic Approach to Story Creation, 日本制御計測學會論文集 5-1, 1980.
10. _____, Modeling of Evaluation Process of Stories, 上同 17-1, 1981.

